

Next Energy

Utilize 출범의 시사점



주간 주요 기업 추가 변동

- **배터리:** CATL(+21.0%), 포스코퓨처엠(-11.4%), Fluence(+10.8%), SK 이노베이션(-9.8%)
- **원자력:** Centrus(+11.0%), 두산에너지(+8.7%), Cameco(-1.6%), Nuscale(+1.1%)

CAPEX 사이클에서 TOTEX 사이클로

미국 전력산업에서 전력망을 더 많이 짓는 것 보다 이미 구축된 전력망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테슬라, 구글, 캐리어 등은 Utilize 라는 산업 연합을 출범했다. Utilize 는 ESS, DR(수요 반응), 계통 최적화를 통해 전력망의 활용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전기요금 등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한다. 듀크대에 의하면 미국 전력망의 평균 이용률은 53% 수준에 그치며, 스탠퍼드대도 미국 서부 기준 평균 30%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지금의 전력망 포화 문제가 설비 부족만이 아니라, 기존 설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구조적 비효율에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앞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지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신규 발전소와 송전망이 완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대응 속도와 비용 측면에서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기존 전력망의 숨은 수용 여력을 활용하는 전략은 빅테크와 유틸리티 모두에게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 되며, 향후 10년간 148조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버지니아주에서 주요 전력회사들이 전력망 이용률을 측정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했으며, 이는 앞으로 전력회사가 신규 전선, 변압기, 변전소를 건설하기 전에 기존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했는지를 먼저 입증해야 하는 구조로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이것이 전통적인 전력기기의 투자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대형 변압기와 일부 핵심 기자재는 공급망 병목이 지속되고 있어 필요한 곳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은 오히려 더 중요해질 수 있다. 지금의 변화는 CAPEX 사이클이 끝나고 OPEX 사이클로 완전히 넘어간다고 보기보다는, CAPEX 편중 구조가 TOTEX(총지출) 중심으로 이동하는 초기로 보는 것이 맞다. 과거에는 설비를 많이 짓는 것이 성장의 근거가 됐다면, 앞으로는 기존 설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운영과 제어를 통해 얼마나 비용을 줄이며, 증설이 필요한 구간에 적절히 투자하느냐가 기업들의 성과 측정에 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간 주요 뉴스

SK 이노베이션, AI 컴퍼니에 5천억원대 투자
AI 산업 확산에 대응해 SK 하이닉스가 추진 중인 AI 컴퍼니에 약 5,580 억원을 출자하는 약정 계약 체결

포스코퓨처엠, Sila와 첨단배터리 소재 공동개발
첨단 배터리소재 MOU 체결을 통해 회사 양극재 기술에 Sila의 실리콘 음극재 기술을 결합할 계획

한수원, 체코전력공사와 MOU 체결
체코전력공사와 원전 전력을 활용한 청정수소 사업 및 기술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두산에너지빌리티, '원전 부실 용접' 승소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공제금 청구소송에서 승소. 한빛원전 5 호기 부실 용접 사건으로 지출한 338 억원 전액을 지급받게 됨

주간 지수 및 기업 시가총액 변화

(pt, 조원)	RECENT	증감(%)
KOSPI	5,487	▼1.7
KRX 2차전지	3,475	▼5.7
KRX 유틸리티	1,018	▲9.0
LG 에너지솔루션	86	▼2.3
삼성 SDI	31	▼5.5
SK 이노베이션	19	▼9.8
LG 화학	21	▼8.9
포스코퓨처엠	17	▼11.4
두산에너지빌리티	68	▲8.7
Tesla	2,201	▼0.5
CATL	399	▲13.1
BYD	186	▲5.7
Fluence	5	▲11.8
Nuscale	6	▲2.0
Centrus	6	▲12.0
Cameco	70	▼0.7

도표1. 월간 EV 판매량 추이

(천대)		26.01	25.12	25.01	MoM(%)	YoY(%)	3Q25	4Q25	QoQ(%)
글로벌		921	1,545	867	(40.4)	6.2	3,984	4,524	13.6
지역별	중국	534	983	533	(45.7)	0.1	2,546	3,063	20.3
	아시아	114	111	49	2.1	132.9	253	308	21.4
	서유럽	119	172	100	(30.7)	19.8	383	475	24.2
	북미	71	99	101	(28.7)	(30.4)	469	262	(44.1)
브랜드별	폭스바겐	54	92	59	(40.9)	(8.8)	236	250	6.0
	GM	6	10	9	(37.1)	(33.0)	74	31	(58.0)
	테슬라	120	199	116	(40.0)	2.9	549	489	(11.0)
	BMW	26	37	30	(29.8)	(12.9)	107	107	(0.1)
	현대기아	28	29	27	(4.5)	3.0	154	103	(33.2)
	BYD	125	237	144	(47.3)	(13.1)	671	772	15.0
서유럽	폭스바겐	32	40	28	(18.9)	15.3	101	120	18.4
	GM	0	0	0	(50.0)	(97.0)	0	0	(71.8)
	테슬라	4	15	5	(73.6)	(15.4)	34	28	(16.7)
	BMW	10	18	10	(46.6)	(1.7)	39	49	25.7
	현대기아	9	8	7	14.1	28.0	31	28	(11.1)
	BYD	6	12	3	(52.9)	95.8	19	27	43.3
북미	폭스바겐	3	2	5	83.3	(44.9)	37	4	(87.9)
	GM	5	9	8	(38.2)	(33.5)	67	25	(62.1)
	테슬라	37	53	40	(31.0)	(7.8)	180	138	(23.1)
	BMW	2	4	4	(53.2)	(48.8)	12	12	0.1
	현대기아	4	5	7	(14.4)	(33.7)	45	14	(69.9)

자료: MarkLines, 유진투자증권
 주: EV Only, 서유럽은 5 개국(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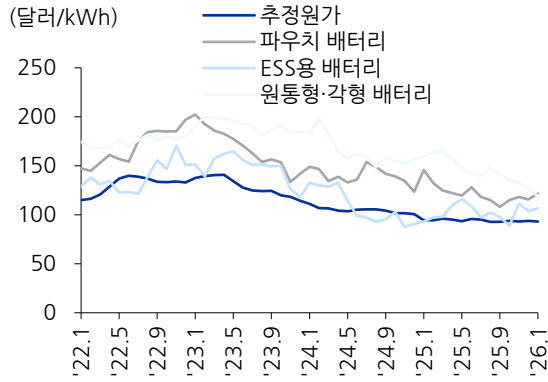
도표2. 월간 전력통계속보

	26.01			25.12			MoM(%)		
	전력판매량 (GWh)	전력판매수익 (W bn)	평균판매단가 (W/kWh)	전력판매량 (GWh)	전력판매수익 (W bn)	평균판매단가 (W/kWh)	전력판매량 (GWh)	전력판매수익 (W bn)	평균판매단가 (W/kWh)
합계	49,353	8,616	175	45,351	8,012	177	8.8	7.5	(1.2)
주택용	7,513	1,219	162	6,753	1,048	155	11.3	16.3	4.5
일반용	13,328	2,338	175	11,390	2,069	182	17.0	13.0	(3.4)
교육용	1,070	148	138	999	139	140	7.1	5.8	(1.2)
산업용	23,907	4,545	190	23,302	4,453	191	2.6	2.1	(0.5)
농사용	2,050	185	90	1,736	157	90	18.1	17.8	(0.3)
가로등	336	50	149	319	48	149	5.1	5.0	(0.0)
심야전력	1,150	132	115	851	98	115	35.1	34.9	(0.1)

	26.01			25.12			MoM(%)		
	발전설비용량 (MW)	발전전력량 (GWh)	가동률 (%)	발전설비용량 (MW)	발전전력량 (GWh)	가동률 (%)	발전설비용량 (MW)	발전전력량 (GWh)	가동률 (%p)
합계	157,285	52,135	44.6	156,563	52,135	44.8	0.5	-	(0.2)
Nuclear	26,050	15,441	79.7	26,050	15,441	79.7	-	-	-
Coal	40,767	17,593	58.0	40,767	17,593	58.0	-	-	-
LNG	45,204	13,593	40.4	45,204	13,593	40.4	-	-	-
Oil	628	24	5.1	628	24	5.1	-	-	-
Water	6,516	557	11.5	6,515	557	11.5	0.0	-	(0.0)
Renewable	37,614	4,629	16.5	36,932	4,629	16.8	1.8	-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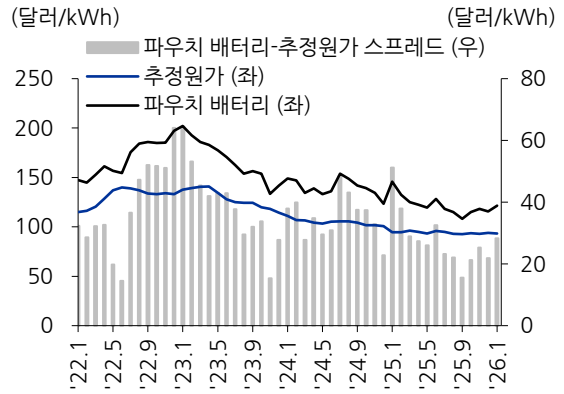
자료: 한국전력, 유진투자증권

도표3. 배터리 가격 및 원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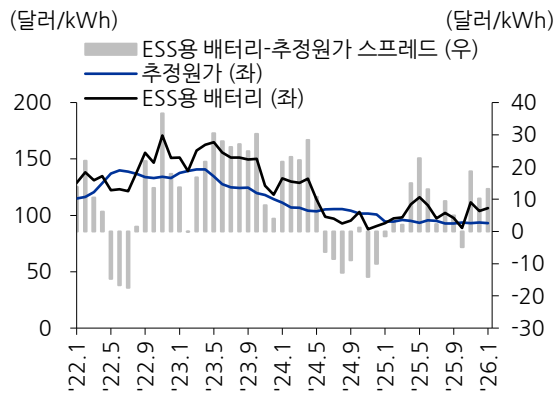
자료: KITA, 유진투자증권

도표4. 파워치 배터리 가중평균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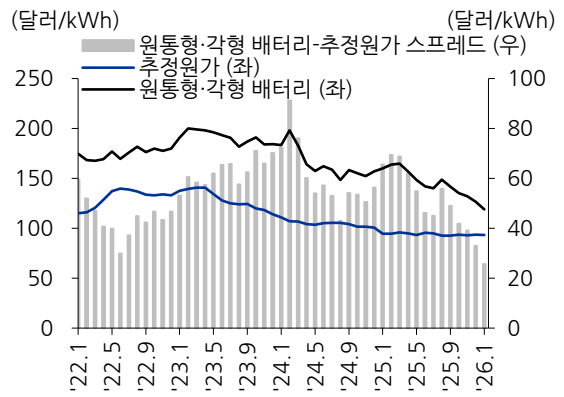
자료: KITA, 유진투자증권

도표5. ESS 배터리 가중평균 스프레드



자료: KITA, 유진투자증권

도표6. 원통형 배터리 가중평균 스프레드



자료: KITA, 유진투자증권

도표7. 니켈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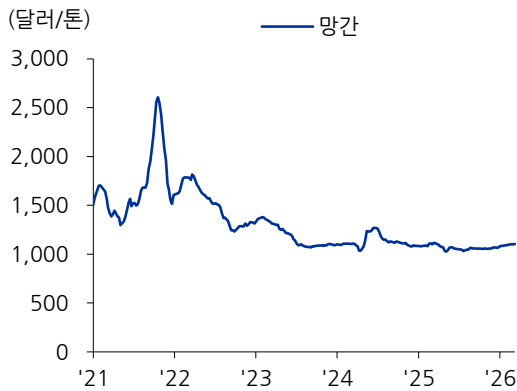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8. 코발트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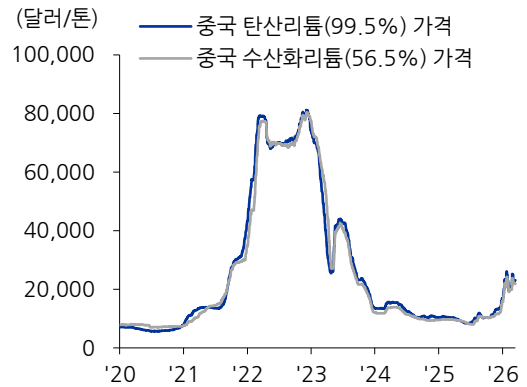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9. 망간 가격 추이



자료: KOMIS, 유진투자증권

도표10. 리튬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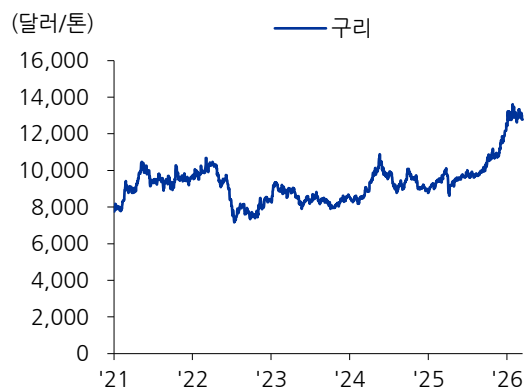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11. 알루미늄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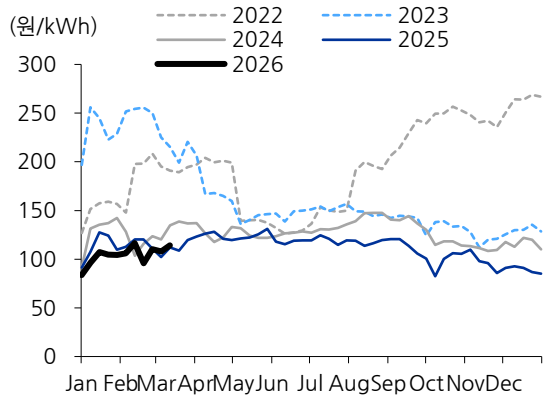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12. 구리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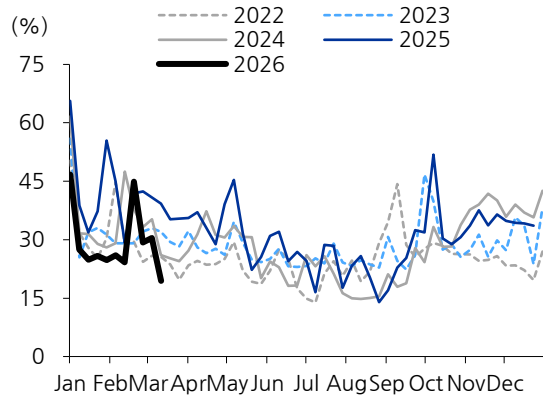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13. SMP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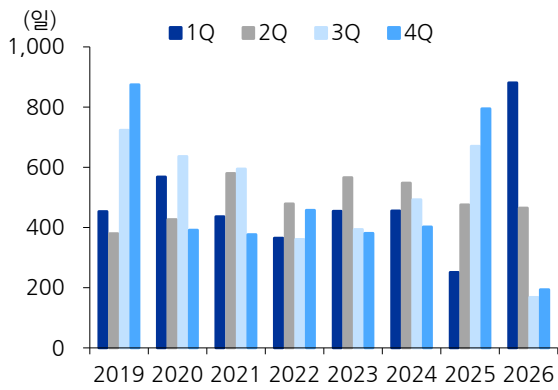
자료: 전력거래소, 유진투자증권

도표14. 주간 평균 전력공급 예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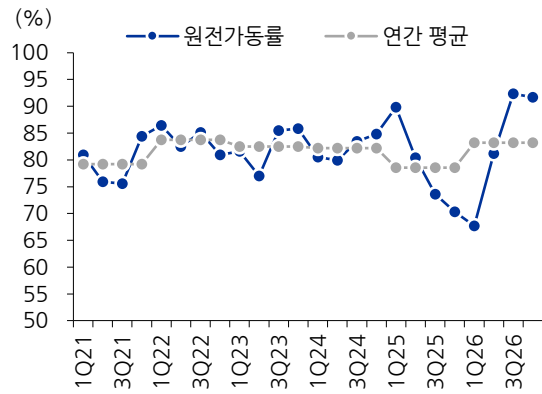
자료: 전력거래소, 유진투자증권

도표15. 원전정비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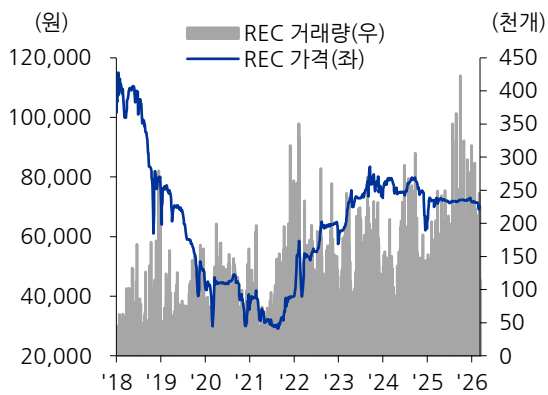
자료: 한국수력원자력, 유진투자증권

도표16. 원전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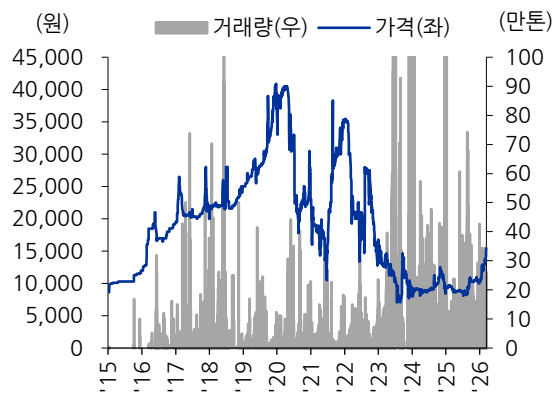
자료: 한국수력원자력, 유진투자증권

도표17. REC 거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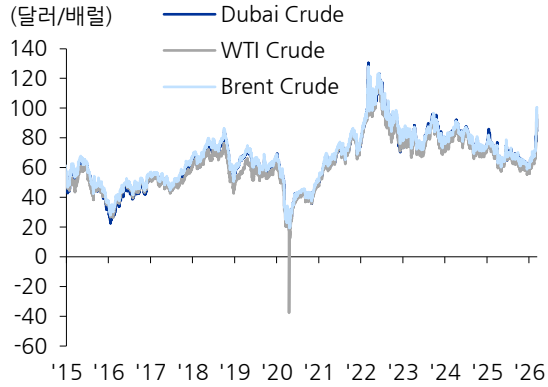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유진투자증권

도표18. ETS 거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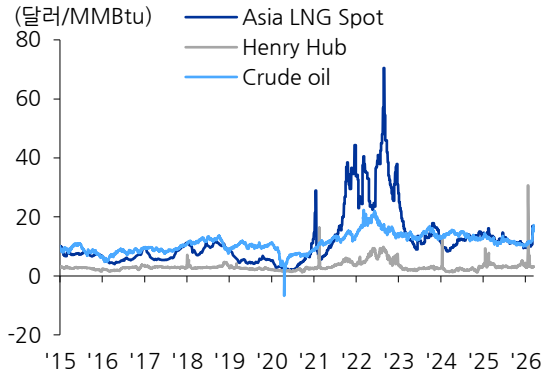
자료: 전력거래소, 유진투자증권

도표19. 국제유가 추이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20. 국제 에너지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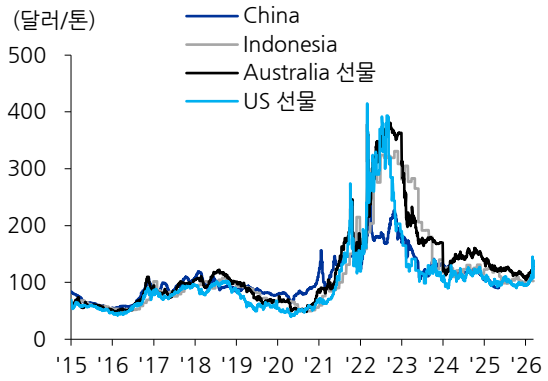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21. 원/달러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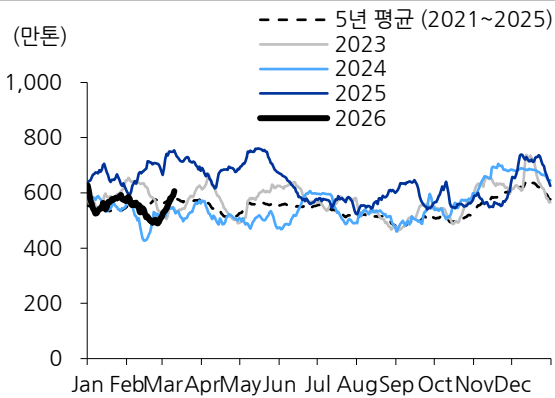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22. 지역별 석탄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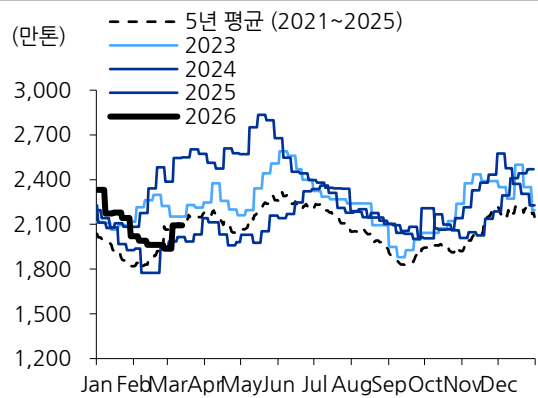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23. 중국 Qinhuangdao 항 석탄 재고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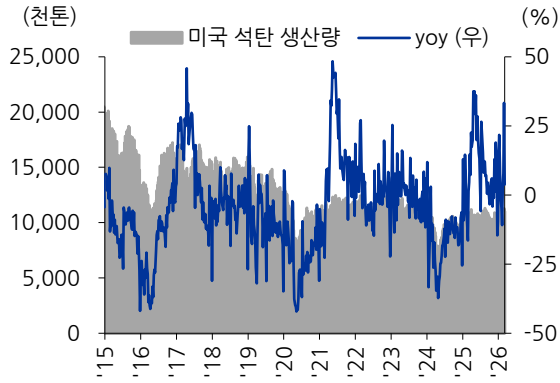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24. 중국 발전용 석탄 재고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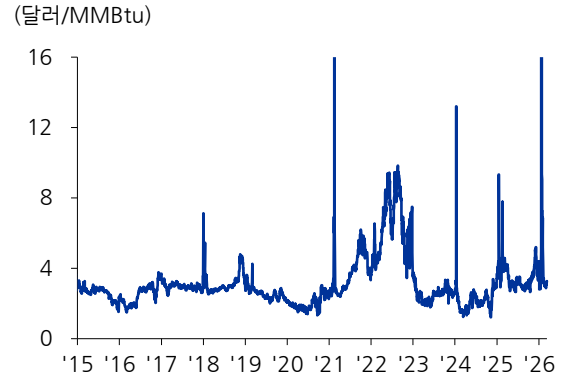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25. 미국 석탄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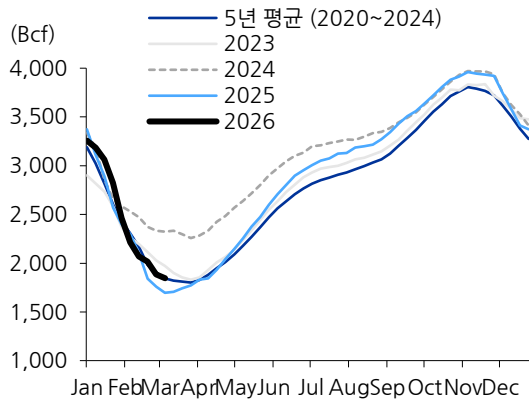
자료: EIA, 유진투자증권

도표26. 미국 Henry Hub 천연가스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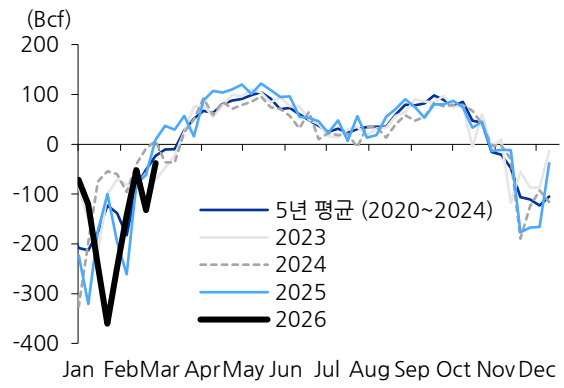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27. 미국 천연가스 재고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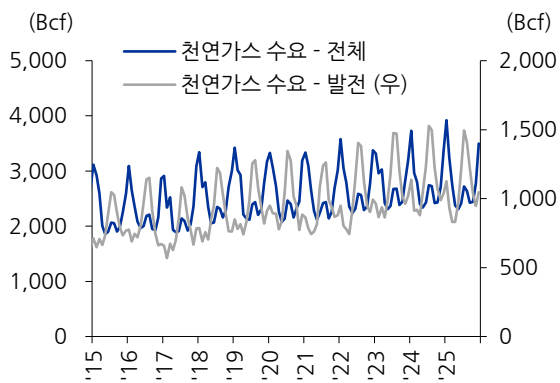
자료: EIA, 유진투자증권

도표28. 미국 천연가스 재고 주간 변화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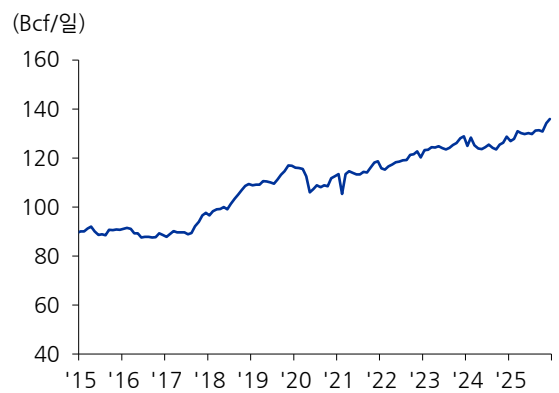
자료: EIA, 유진투자증권

도표29. 미국 천연가스 전체 및 발전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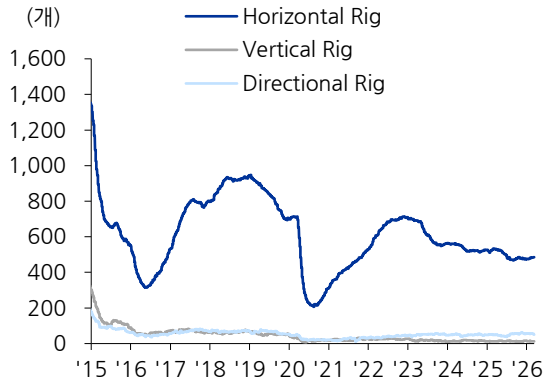
자료: EIA, 유진투자증권

도표30. 미국 천연가스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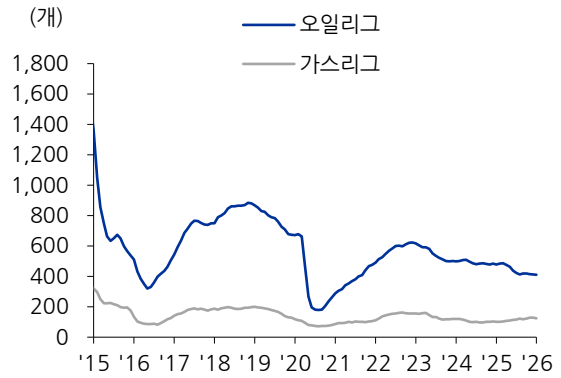
자료: EIA, 유진투자증권

도표31. 미국 천연가스 시추 수평, 수직 리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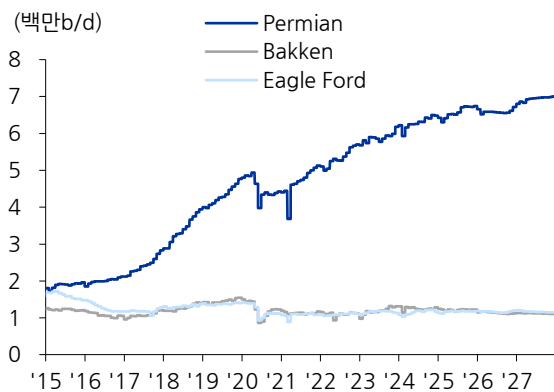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32. 미국 원유, 가스 리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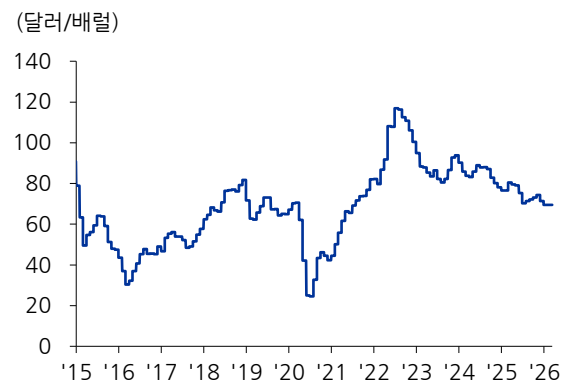
자료: EIA, 유진투자증권

도표33. 미국 주요 셰일오일 생산량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34. 일본 원유 도입가격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 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8%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2%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5.12.31 기준)